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행감 5일차  
의원들 송곳질문 이어져

부안군의회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3개 담당관 행정복지국 소관 6개 부서 및 산업건설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에 대한 군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정기 의원은 ▲ 공무원의 적극적 출산장려를 위한 근무평정 가점 이외의 다양한 방안 마련, ▲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소속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 마련, ▲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지관 시설 하차보수 및 안전검사 추진 등을 각 부서에 요청했다.

이강세 의원은 ▲ 공무원 자기 진작을 위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한 특급승진 및 특별승급 기회 부여, ▲ 청년인구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기업 유치 노력, ▲ 소셜 미디어를 통한 관광홍보 효과 및 중요성 증대에 따른 예산확충 및 확보 등을 촉구하였다.

김연식 의원은 ▲ 공무원의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효과적 방안 마련 및 신규직원 친절교육 시행, ▲ 청자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강화 및 단거지 추진 방안 마련, ▲ 각종 군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에 관해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경로당 전기 점검

부안군은 관내 경로당 472개소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읍을 비롯한 7개 지역(주산·동진·계화·보안·백산·상서·위도면) 경로당은 올 상반기에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행안면을 비롯한 4개 지역(변산·진서·하서·출포면) 경로당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12월 중순까지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기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서부지사에서 실시하며 경미한 결함사항은 즉시 보수하는 등 전기로 인한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임도 신설 추진

## 산림휴양·레포츠 관광자원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산악자전거 코스개발·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접근성 제고

최근 숲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임도를 활용한 테마 임도가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임도 시설은 산림에 조림 숲 가꾸기, 임산물 운반, 산불 예방 및 복구 등 산림경영·관리를 위해 산림 내 시설한 도로를 말한다.

최근 국민건강과 산림복지 향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림과 임도 시설을 이용하는 야외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임도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문화·휴양과 산림 레포츠 활동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산림휴양과 산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1985년부터 개설한 정읍시 전체 22개 노선

110km 임도를 활용·개발해 지역 내 다양한 산림 레포츠 행사들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쾌적한 산림환경과 임도 시설을 이용해 2019년부터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칠보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임도를 신설하고 있다.

산악자전거 코스는 내장산문화관광을 시작으로 기존 개설된 임도를 연결해 북면 보림리, 칠보 축원리, 백암리, 반곡리, 수청리를 경유하는 약 52km 구간이다.

시는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산악자전거 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 노선을 정리하고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을 위한

구룡동~수청리 임도개설은 패러글라이딩동호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오랜 숙원사업이다.

민선 1기인 1998년부터 칠보산에 진입로와 이륙장개설을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임야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활공장임도 진입 구간 산림의 동의를 이뤄졌고 전라북도 임도 타당성 평가 후 시공하고 있으며 향후 칠보 수청리까지 연결노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신원동~교암동 기존 임도와 용산동에 조성되는 내장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해 산림 내 다양한 산림복지·휴양할 수 있는 임도 시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악자전거 코스와 패러글라이딩장이 완공되면 임도를 이용한 산림휴양·레포츠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야외활동가 유입은 물론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정읍천 정주교(새고을시장 밑, 초산동주민센터 앞) 인근 옹벽에 최근 2번 더와 구절초 등 정읍의 향기를 담은 벽화를 조성했다.

## 정읍천 노후 옹벽 꽃 벽화로 새 단장

### 정읍시, 쾌적한 하천환경 제공

정읍시가 산뜻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정읍천 정주교(새고을시장 밑, 초산동주민센터 앞) 인근 옹벽에 최근 2번 더와 구절초 등 정읍의 향기를 담은 벽화를 조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주교 밑 옹벽은 햇빛과 바람, 습기 등 자연적 영향으로 노후화되고 퇴색되면서 경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색 전문 회사를 섭외해 2번 더와 구절초 등 정읍을 대표하는 각종 꽃을 그려 하천환경 개선과 동시에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을 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샘골다리부터 정주

교까지 벚꽃로 범면 약 2,000㎡ 면적에 꽃잔디를 추가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 봄에는 벚꽃과 꽃잔디(면적 약 5,000㎡)가 만개해 정읍천을 산책하는 시민은 물론 벚꽃 축제 등으로 정읍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에는 정주교 인근 옹벽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무성서원과 옥정호 구절초 공원, 내장산 단풍 터널 전경을 담은 벽화 타일을 설치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가까운 정읍천을 산책하면서 답답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읍천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유기상 고창군수, 국가예산 확보 마지막까지 '안간힘'

### 국회 중흥무진 현안 반영 설득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 심사가 한창인 24일 유기상 고창군수가 국회를 중흥무진 누비면서 2021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사활을 다하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이날 지역구 의원인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면담했다. 또 국회 상주 중인 기획재정부 인도걸 예산실장과 장운정 고용환경예산과장 등을 차례로 면담해 2021년 확보대상 현안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반영에 힘을 실어 주길 당부했다.

현재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에 따라 예결소위의 감액심사 등이 진행 중이다. 이에 고창군은 국회와 기재부를 밀접 접촉·설득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펼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K-뉴딜의 그린뉴딜 일환으로 사업비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지역습벨트 조성사업'을 비롯해 '강남지구

배수개선사업'과 '성내·무장·신림·해리의 농어촌마을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영농환경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대형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최종 예산이 국회 의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역대 최대 국가예산확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정치권 전북도와 협력하면서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증액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군, 방문상담·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전북 고창군이 도내 최초로 14개 읍·면에 방문간호사 인력을 확충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은 읍면 중심으로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2018년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방문상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통합사례 기능을 전담하고 있었다.

이후 고령화 등으로 군민 건강상당 필요성이 늘어나고, 복지 사각지대 해

소 등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달 현장 방문간호사를 모든 읍면에 배치했다.

간호직 공무원은 사회복지담당자와 함께 주민센터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세대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더해 고창군은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관련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민관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회복지과에 전담인력 2명도 배치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찾아가는 종합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가 강화된 읍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나눔과 봉사로 촘촘한 고창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